

## 김영록 전남지사, 덴마크 오덴세항에서 목포신항 활성화 구상

### 연구개발 등 해상풍력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현장 시찰 전남도의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조성 롤모델 기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현지 시간) 덴마크 오덴세 항을 방문, 오덴세 항만 사의 모든 디더리히 사업개발 수석 매니저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터빈공장을 시찰했다. 오덴세 항은 글로벌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뫼섬 동북쪽에 위치한 덴마크 최대 항만이다. 1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해 1천800여 종이 넘는 해상풍력 부품·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 해상풍력발전 단지 유지보수의 약 20%가 오덴세 항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 항에서 해상풍력의 연구개발-생산-조립-운송-설치-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남도는 오덴세 항을 롤모델 삼아 목포신항을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조성할 계획으로,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A.P 몰러-머스크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 항만에 위치한 세계 1위 터빈기업 베스타스 린도 공장을 시찰했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린도 공장은 약 4만㎡ 규모로 여러 모델을 생산

한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이자, 초도품 생산 시설이다. 김영록 지사는 “거대한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보니,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될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더욱 기대가 된다”며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적기에 준공되도록 인허가, 투자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해 블루오션 산업을 육성,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신산업으로 부흥한다는 목표다. /서용운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현지 시간) 덴마크 오덴세 항을 방문, 오덴세 항만 사의 모든 디더리히 사업개발 수석 매니저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터빈공장을 시찰했다. /전남도 제공

## 현대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쏘나타 택시 1호차 전달식



24일 실시된 현대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쏘나타 택시 1호차 전달식에서 송성호 현대차 광주전남지역본부장(사진 우측)과 김상록 국제교통 대표이사(사진 좌측)가 기념 촬영하는 모습. /현대차 제공

현대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성호)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제교통에서 ‘현대자동차 쏘나타 전용택시’ 1호차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 국내 내연기관 중형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인 ‘쏘나타 택시’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법인택시 업체인 국제교통이 100% 현대차 택시를 보유하며, 오랜기간 현대자동차와 동행한 점을 고려해 광주지역 ‘쏘나타 택시’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쏘나타 택시’는 모델 특성상 가혹한 시내주행환경에서도 택시업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내구성을 높인 스마트스트립엔진 LPG 2.0 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또한 쏘나타 택시는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휠베이스를 70mm 늘려 넓은 2열 공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보다 쾌적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쏘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

운전석 무릎 에어백 ▲1열/2열 사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9 에어백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LF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현대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송성호 본부장은 이번 쏘나타 택시 1호차 특별 전달식 진행을 계기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쏘나타 택시는 택시 전용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2열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등 특화된 상품성을 갖춘 차량이다.”라며 “택시 전용 모델로서 차별성을 갖춘 쏘나타 택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광주시, 품앗이 육아로 틈새돌봄 강화

도농산단, 한부모·장애인, 맞벌이, 다문화 등 참여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이웃집 긴급 육아 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에 참여할 자조모임 19개팀을 최근 선정, 모임별로 최대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류와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조모임은 상대적으로 돌봄 기반 시설이 다소 미흡한 도시농촌산단, 한부모·장애인, 다문화·취약계층, 맞벌이 자조모임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구성원과 함께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며, 자조모임별로 최대 12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선정된 자조모임의 지속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업체 양육자 상담(컨실

팅), 돌봄공동체 후원(멘토링), 아빠육아골든벨·힐링캠프 등 아빠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근접한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며 믿을 수 있는 이웃끼리 필요할 때 서로 맞돌봄을 통해 기존 시설돌봄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육아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웃이 함께 모여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함께 일상돌봄을 나누고 주도하는 촘촘한 광주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